

윤종규 “패러다임 전환 가속… 금융 본연의 역할로 대응”

(KB금융그룹 회장)

KB금융 하반기 경영진 e워크숍

30여개 장소, 화상회의시스템 연결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실행방안 논의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하자며 경영과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흥역을 치른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KB금융은 사모펀드 사태를 모두 빗겨갔다.

KB금융은 지난 10일 윤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이(e)-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워크숍은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에 맞춰 각 참석자들이 근무하



지난 10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과 경영진이 화상회의로 ‘2020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이(e)-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KB금융

는 사옥 및 사무실 등 30여 개의 장소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KB금융은 이미 지난해 초 그룹 내 모든 계열사를 연결하는 자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내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뉴 노멀(New Normal) 시대, KB를 말하다’라는 주제의 영상 시청을 통해 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코로나가 고객과 직원들에게 끼친 변화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며 시작됐다.

다음 세션에서는 ‘2030년 미래금융 시나리오’ 및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룹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했다.

특히 중장기 경영전략 중 ▲핵심 경쟁력 ▲언택트 ▲비욘드 코어(Beyond Core) ▲지속가능경영 ▲뉴 웨이 오브 워킹(New way of Working) 등의 주제와 관련해 경영진이 실행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며 전략 방향을 더욱 구체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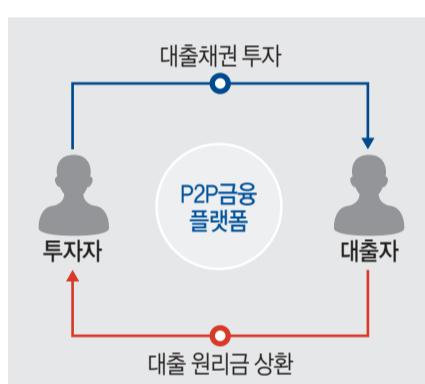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특강 세션에서 윤 회장은 “코로나로 가속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에 대해 집단지성을 모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자”며 “무엇보다도 정도 영업과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 모든 경영진이 활발한 토의를 통해 그룹의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룹 임직원 모두가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금융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metroseoul.co.kr

P2P금융,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 마련

건설경기 악화로 연체율 증가
P2P업계 연체율 평균 16.65%
부동산PF서 개인신용·반려동물



업계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부동산 PF에서 눈을 돌려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12일 P2P대출 통계업계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업계 연체율 평균은 16.65%에 육박한다. 자금 대부분이 부동산 건축 자금 PF로 흘러가며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P2P업체의 연체율도 늘어난 것. P2P업계 1위로 알려진 ‘데라펀딩’도 최근 PF부문 15건에서 연체가 발생하면서 연체율이 20%까지 치솟았다.

P2P금융기업 피플펀드는 올해 초 사업포트폴리오를 부동산 PF에서 개인신용대출, 아파트담보대출로 선회했다. 지난 8일 ‘개인신용 포트폴리오’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투자자는 한 번의 투자로 다수의 채권에 소액 분산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50~100개의 채권에 자동 분산투

자하도록 구성했다”며 “개인신용대출의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0.1% 미만인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개인신용대출에 집중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도 있다. P2P금융기업 ‘웬딧’은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5년 전부터 개인신용대출에 집중해 왔다. 59개월 평균 수익률은 4.3%, 24개월 평균은 5.9%, 18개월 평균 6.9%(세전 기준)로 수익률을 내면서도 동시에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을 겨냥한 P2P금융 상품 확장도 이어졌다. P2P금융사 데일리 펀딩은 반려동물 케어플랫폼 ‘펫닥’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데일리 펀딩 층은 “타 전문직 대출에 비해 한도가 낮고 문턱이 높은 수의사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니 1만원도 지급된다.

우리종금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SSG페이와 콜라보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SG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1일까지 2만명에게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안상미 기자

금융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

내달 4일까지 허가요건 등 검토 외부평가위, 허가심사 공정성 확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정식 예비허가를 받기 전 사전 신청을 통해 허가 요건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를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예금, 대출, 보험납입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확인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일정〉

일정	기한
1.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 사전검토	'20.7.13(월) ~8.4(화)
2.마이데이터 허가신청 접수 진행	'20.8.5(수)

확인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상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오는 2021년 2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5월 13일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운영한 기업을 우선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 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업이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오는 8월 4일 까지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8월 중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銀, 우수고객 언택트 자산관리 성료

신한은행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언택트 자산관리 세미나·‘컨시어지 뱅킹스’를 시행했다.

‘뱅킹스’는 뱅크(BANK)와 바캉스(VACANCE)의 합성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산 관리를 계획 중인 고객에게 편안하고 편리하게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세미나며, 웹 세미나 및 개인별 화상 상담의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주식전망, 부동산 투자전략, 절세 방안 등을 주제로 신한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고객의 질문에 즉답이 가능한 화상 상담을 마련해 참가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신한은행은 영업점을 거래하는 우수



신한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산 관리를 계획 중인 고객에게 편안하고 편리하게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신한은행

고객 중심으로 제공됐던 자산관리 세미나를 비대면 거래 고객까지 범위를 넓혀 신한 콜(SOL)과 신한PWM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다. 회차별 50명, 총 150명을 모집하는 참가 신청이 5분 만에 마감돼 참가 인원을 각 회차별 150여 명, 총 450여명으로 늘렸다.

/안상미 기자